

‘수용번호 4398’ 김건희 오늘 특검으로...구속 후 첫 조사

남부구치소 “순, 통보된 시간 출석할 것” 건강문제 이유 유보적 태도 취하다 출석 미결수용 수의차림으로 ‘머그샷’도 찍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구속된 김 여사에게 14일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 측은 조사 시간에 맞춰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로부터 김 여사가 해당 시간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출정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팀 사무실로 올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애초 김 여사 측은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결국 조사에 응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김 여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남부구치소로 이동한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 수용번호 ‘4398’을 배정받고, 일반 수용자와 같이 미결수용 수의 차림으로 ‘머그샷’도 찍었다. 그는 입소 이후 한 차례도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안 좋아 잘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구속 필요성을 다루는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구속심사 중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구속적부심도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김 여사 측 시각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에 적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집중해 변론을 준비했는데 특검이 ‘나토 목검’으로 불리는 반클리프 아펠 목검의 진품·가품 실물을 제시하며 일종의 ‘반칙’을 했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에 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팀은 재판부가 혐의사실 전후의 경위와 공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13일 김건희특검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국힘 압수수색...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등 수사

중앙당사·의원회관 기획조정국 대상 영장 제시 필요 자료 임의제출 형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통일교 교인들의 무더기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형태다.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

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등장한다. 전씨와 윤씨가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씨는 문자메시지로 전씨에게 “윤씨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물었고, 전씨는 “윤씨는 변함없이 권”이라며 권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

는 대가로 통일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취지의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윤씨는 특검 조사에서 한 학차 총재 등 통일교 ‘윗선’의 결재를 받아 2021년부터 권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18일 권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 및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측도 “교단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후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 인과응보”

김영록 지사 “성역없는 수사·단죄를”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김건희씨 구속은 국민적 공분을 사온 일탈과 범죄가 차고 넘쳤으니 사필귀정 인과응보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고가의 목검이와 명품백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혹에 대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뻔뻔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대단히 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국가문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하고 내란행위와 그 방조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정의를 바로 선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김 지사는 “법적·역사적 심판을 통해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정기자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 본격화

특검, 21그램 등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에 업로드된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가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배대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일각에서는 이 회사가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예정이 낭비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21그램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1그램을 불법 하도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 1) 임동5거리 8층 135평 은행감각가 6억1,600급매가4억1,000(3,000세대아파트 대로변)
- 2) 용자금(14억)만 안고 그냥 이전해가세요 산수동5거리 4층건물 대지150평 연건평380평 주차15대
- 3) 대인광장로타리 상업지 188평을 급매합니다 평당1200만원(조정됨)입니다
- 4) 운암자이(구주공)등5,000여세대 대로변코너 대지202평 5층622평 승강기1,주차11 급매45억
- 5) 드라이브스투 마케팅용빌딩 남부권 관문, 아파트1만세대 생활권 6차선대로변 대지606평 지하1층 지상3층 승강기1, 에스컬레이터 각종, 주차92대 가능 급매90억(용자75억) 현금15억 인수 가능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719-3380, 010-8678-4638